



들어오면 잘 모르기도 하고, 한문은 보수라고 생각 하나...

40년 다산 법사상 연구하며 당시 송유역불 안타까움 공감해

<다산 초당과 불일암>에는 합리 상징 다산과 무위 상징 법정 다뤄

인본이 하나, 둘 있을 때니까 아주 희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봤어요.

“다산은 불교 비판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스님 일 대가라든가, 유명한 도승들 시집에 서문이나 발문을 쓴 글이 많아요.

거도 보고 현장에 나와서 정치하고 제자도 길러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한 지식인이 불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안타깝다고 쓰곤 했어요.”

“4월 28일, 지리산 지맥 조계산 일대에는 오전 내내 주룩주룩 비가 내리며, 겨울처럼 날씨가 추웠습니다. 법정 스님 49세 목재가 빗속에서 열리고 있어 송광사 대웅전 트락 결 승보전을 향해 비를 피해 박물관 처마 안쪽에 섰습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밖의 먹물을 가져 오나라

입동이 지난 나무는 발가벗은 모습이다. 창 넘어 나뭇가지에는 잎새가 도리질을 치고 있는 귀염둥이 마냥 좌우로 경쾌히 흔들며 대고 있다.

아이의 재물에 부모의 마음이 무척 기쁘겠지만 잎새의 나부김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웬지 이별의 아쉬움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글씨를 쓸 때 글씨의 필세가 건쾌(健快)할 경우 토기골락(坵起鵲落)이라고 하는데 가지마다 그런 모습이다. 토기는 토기가 귀를 쫓듯이 세우고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 형상을 표현하였고, 골락은 송골매가 창공을 날다 먹이를 발견하고 놓칠새라 쩌쩍게 몸을 내리꽂듯이 내려온다는 말이다.

선화(禪畵)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선사가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이 언제쯤 완성되는지 그 시점을 말해줄 수제자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제자도 걱정을 하고 스승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건 선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화는 유려하게 흘러나오는 그림인 것이다. 우여곡절 속에 선사는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렸다.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더 많은 실수를 연발했다. 그리고 먹물이 다 떨어지자 스승이 말했다.

“밖에 먹물을 가져 오나라.”

제자가 먹물을 가지러 밖에 나간 사이, 기이하게도 스승은 걸작품을 완성해냈다.

제자가 돌아와서 그림을 보고 놀라 물었다.

“완벽한 그림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네가 옆에 있었던 게 문제야. 내 옆에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게 나의 평상심을 깨뜨린 게 아닌가. 이제야 알았네. 누군가 옆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쓸수록 그림은 완벽해 질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마치 저 산에 무지개를 잡으려고 애써 달려가면 이미 무지개는 체미를 차려 더 먼 산에 가

의젓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듯이, 무엇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완벽해 질 수 없다.

자연은 완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하다. 그 무엇인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면 늘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대 선사들은 평상심을 강조했다. 수행자가 평상심을 잃으면 이미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만다. 자유로이 계곡을 누비던 산토끼나 사슴은 작은 인기척에도 고개를 쳐들고 포식자를 생각한다.

붓을 잡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붓을 약간만이라도 머뭇거리면 사방으로 먹물이 번져 글씨나 그림을 망치고 만다.

완벽하려는 그 마음이 평상심을 깬다 번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자유 자유 속 발현되는 자연스러움이 감동

머뭇거리면 그 작품은 망치고 마는 것이다. 임격(入格)이 없는 출격(出格)이란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 이치는 모두 격식이 있기 마련이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유난히 붓의 힘이 굳센 주경(遯勁)이 넘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작가의 힘이 넘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작가의 힘이 넘쳐 있고 기가 넘치는 작품이기 때문에 눈길만이 아니라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한다.

감동은 순수를 부르고 순수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한다. 걸작 일수록 순수함이 점유하는 영역이 광대하다. 마치 자연이 그렇듯이, 찌든 영혼에 빗질을 해야겠다.

창 밖에 상상한 나뭇가지에 작은 잎새가 도리질을 치고 있는 탈속함에서...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뚝뚝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